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시편 100편 1-5절

-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 5 여호와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2021년

추석 가정예배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 신명기 7:13

즐거움 추석 보내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리교회**

예 배 순 서

인도 : 말은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송	----- 301장(통 460장) -----	다같이
기 도	-----	가족대표
성경봉독	----- 시편 100:1-5 -----	인도자
말 씬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인도자
기 도	-----	인도자
찬 송	----- 559장(통 305장) -----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추석은 한해의 결실을 통한 기쁨과 감사 속에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고유의 명절입니다. 올 한해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2절).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3절).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솔로몬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잠 16:9)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되심에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의 인자하신 영원한 사랑에 감사합니다(5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친절, 자비, 자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 말은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던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이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롬8:35)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믿으며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